

## 초점과 주제의 음성/음운론적 분석을 통한 제주 방언의 분화 연구\*

강석한 · 원종섭 · 김원보\*\*  
(서울대학교·제주대학교·제주대학교)

**Seokhan Kang · Jongsup Won · Wonbo Kim (2011), A Study of Dialectal Division of Jeju Korean through Phonetics and Phonological Analysis on Focus and Topic. *Studies in Linguistics* 21, 1-15.**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phonological/phonetic division for Jeju dialect of Korea analyzing the phonetic/phonological parameters of semantic focus and topic. Subjects consists of 12 native female residents of 4 towns in Jeju, Korea. For the purpose, we conduct a phonetic/phonological experiment where we examine types of pitch accents, F0 range, and duration in both focus and topic utterances. The finding is that the dialect of Jeju could be divided into two areas: south-western and north-eastern zone of the dialect. This division could be dependent on types of pitch accents and F0 range, not on focused-syllable duration. F0 range in south-western Jeju exerts over 50 Hz higher than that in north-eastern Jeju. It means that both focus and topic in South-western Jeju include more accentuated prosody. However, we can't fi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uration of the focused syllable between two areas. It means that though we can divide the Jeju dialect into two areas, the division is not clear. **(Seoul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1-32A-A00081). 부분적인 내용이 현대문법학회/언어정보학회 2011년 가을학술대회(공주교육대학교, 2011. 11. 5)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논평을 통하여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준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담고 있는 내용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저자에게 있습니다.

\*\* 강석한: 주저자. 김원보: 교신저자

##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focus, topic, Jeju Korean, pitch, duration, tone

## 1. 서론

초점과 주제는 발화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론적 초점과 주제는 음성학적 혹은 음운론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Halliday, 1967). 일반적으로 주제(topic)는 말하는 대상이고, 초점(focus)은 주제에 대하여 서술되는 것을 의미한다(Gundel, 1999). 국어에 있어서, 주제는 형태론적으로 ‘-는/은’이라는 보조사가 사용되며, 반면에 초점은 ‘-만’, ‘-도’, ‘-까지’등의 조사가 사용된다. 이러한 초점과 주제는 음운론적으로 변별적인 운율 자질과 음성학적으로 독특한 음성 매개변수의 특징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초점과 주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조사 중에서 ‘-은/-는’이 붙는 경우 주제가 되기도 하고(박승윤, 1986, 최규수, 1999), 혹은 대조 초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김용범, 2004). 초점인 경우도 초점사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통 부사인 ‘다만, 역시, 심지어’와 이들의 대응요소인 ‘-만, -도, -까지, -조차’는 국어의 초점사에 속한다고 본다(최규련, 1998, 1999; 최재웅외 4인, 1999).

초점과 주제가 구현하는 음성학적 혹은 음운론적 특징이 방언권별로 달라진다는 연구결과 있었다(Chung & Kenstowicz, 1997; 오미라, 2008). 본 연구는 이 결과를 제주 방언의 하위분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제주 방언권을 세분할 때에는 어휘를 기준으로 하여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으로 분리하거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 동과 서쪽으로 하위 구분하든지, 혹은 과거의 행정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주, 정의, 대정등 세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현재의 행정 구획선과 일치하는 남과 북쪽 지역으로 하위 구분하여왔다(강정희, 1988, 2005; 강석한, 2008). 현 연구에서는 초점과 주제에 구현되는 음성학적 혹은 음운론적인 특징을 관찰하여 제주 방언이 몇 개의 하위 방언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미론상의 초점과 주제가 구현하는 운율특징이

하위 방언권을 분류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측정 신호들의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은/-는’의 조사가 붙는 경우를 주제로 분류하였고, ‘-만/-도’의 조사가 붙는 경우는 초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은 초점과 주제의 음운론적 혹은 음성학적인 구현을 통하여, 단일 방언으로 보이는 제주 방언권이 사실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미론상의 초점과 화제의 음성학적 혹은 음운론적 분석이 하위 방언권 분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 2. 국어의 초점과 화제

초점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점이 부여된 어구는 운율적 돌출립으로 구현된다. 이 초점에는 초점 부사인 ‘다만, 역시, 심지어’ 그리고 초점 조사 ‘-만, -도, -까지/마저/조차’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 (1) 가. 돌이가 순이에게 장난감을 **다만/역시/심지어** 사줬다.  
나. 돌이**만/도/까지/마저/조차** 순이에게 장난감을 사줬다.

(1.나)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첨가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주로 명사에 붙는 ‘만’, ‘까지’, ‘조차’는 초점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인다.

주제는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Gundel (1999)은 ‘문장 S를 사용할 때 화자가 어떤 것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의도하며 청자에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체 E와 관련하여 행동하도록 만들면, 그런 경우에만 그 E는 S의 주제이다.’라고 보았다. 주제는 또한 ‘메세지로서의 절에 대해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서 기술되어 왔다 (Halliday, 1967). 따라서, 주제는 이전 담화나 청자의 정신세계에 대해 주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핵 강세를 받지 않는다. Reinhart (1982)는 영어의 주제를 문두의 요소이면서 핵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초점은 피치 액센트를 받지만, 주제는

액센트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오미라 (2008)에 의하면, 초점을 받은 단어는 새로운 액센트구를 이루는데, 선행된 액센트구에서 진행되는 피치 단계하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피치가 재조정되어 피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초점을 받은 단어는 액센트구내의 최고 피치값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Chung & Kenstowicz (1997)의 서울 방언 화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대조 초점이 부분 초점(narrow focus)에 비하여 기본 주파수값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한결 같이 국어의 초점 구현은 강한 피치를 동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어의 주제에 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중 Lee(2000)와 Jo et al. (2003)이 대표적이는데, Lee(2000)는 주제(topic),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 나열(list)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주제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에서 주제는 액센트를 가지지는 않지만, 대조 주제는 H\*를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Jo et al.(2003)은 초점은 피치 액센트로 나타나지만, 주제는 반드시 피치 액센트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 처음 위치에서는 피치 범위에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로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국어의 주제는 피치 액센트를 가지지 않는다.

### 3. 실험

#### 3.1. 실험 대상

제주도의 동, 서, 남, 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고산리, 색달리, 선흘리, 수산리를 각각 선정하여 음성 채집을 하였다(지도 참고, 그림 1), 이 네 지역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이며, 20-30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보리, 조, 고구마, 위주의 밭농사를 주로 하였고, 근래 들어 귤농사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제주도 촌락이며, 부수적으로 돼지, 소등의 소규모 목축을 겸업하고 있다. 음성 채집은 각 마을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음성 채집을 허락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녹음하였다. 그분들께는 소정의 수고료가 지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80세-90세 정도 되는 여성 3인, 총 12인을 선정하여 초점과 주제 부분만을 분석하였다. 12명의 모든 피험자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기 그 지역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들이다. 학력은 1명만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수산),나

머지는 모두 무학이다.



<그림 1> 음성 녹음 채집 지역(고산, 색달, 선흘, 수산)

### 3.2. 실험 방법

면담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험자들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유도하였다. 면담자들은 모두 제주 출신이며 언어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다.

#### (1) 질문 항목

의복(절기 및 행사), 갈옷 만들기, 음식(절기 및 행사), 전통주, 떡, 주거(공간 구조, 건축 및 지붕 교체), 부엌과 고팡, 마을 공동체,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 문제, 혼례, 상례, 제례, 지명, 속담, 민간 신앙, 마을제, 세시풍속, 민속 놀이, 남자의 일상, 여자의 일상, 신체, 가족, 친족, 노후 생활, 동물, 식물, 기후와 날씨, 시간 및 수량, 식수, 화장실, 오일장, 생활용구(명석/명탱이/푸는체/굴체).

이중 본 연구의 관심인 초점과 화제부분만을 발췌하여 음성 분석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질문과 대답에 나타난 초점과 주제이다.

(2) 초점

가. 수산리 화자.

질문: 농사는 어떻 지어수강? 검질은 어떻게나 수강?

대답: 검질 ㅅ·꾸고양. **잘도** 힘듭니다. 제왕지. 해바라기. 무신. 아니냥  
게 다 어십니다. 비오당 그치민 **밭에만** 와섭쥬 마썸.

나. 색달리 화자.

질문: 농사 많이 해나수강.

대답: 농사 많이 해나수다. **미깡도** 많이 해나고.

질문: 검질도 많지예?

대답: **검질도** 밭에 하나두멍. 막, 하영. 소뭍. 곡식은 놔두고 **검질만** 매가멍.

다. 선흥리 화자.

질문: 보리, 조, 콩 말고 다른거 특별히 허는거 이수강.

대답: **산디도** 하고, **메밀도** 허고, **폴도** 허고.

(3) 주제

라. 수산리 화자.

질문: 농사는 어떻게어수강.

대답: **농사**는 예. 쇠길르고 도새기 길르고 겨술들어가민 **뚝거름** 내다그  
냥. 이언 불러 보리씨 **베영**. 그걸 밭에다 뿌리쥬 마썸.

마. 색달리 화자.

질문: 귀주떡은 뭘로 만들어수강?

대답: **귀주떡은**, 떡으로 만들어냥.

바. 고산리 화자

질문: 보석말고 뱃이 이서수강?

대답: 뱃은 움쩍 낚작ㅎ ·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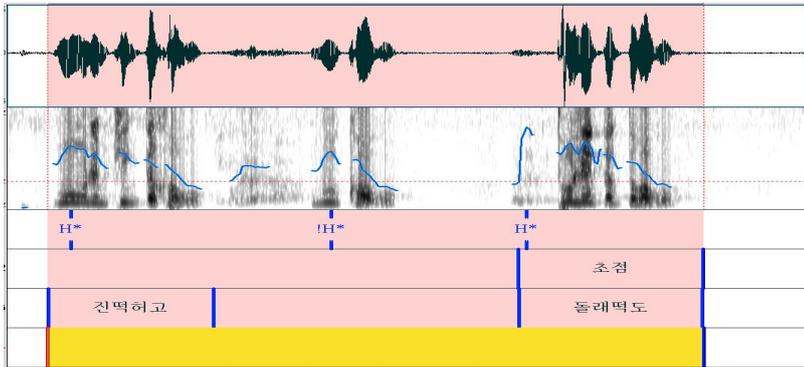
사. 수산리 화자

질문: 보리는 어떤 불리수강?

대답: 맨발에, 신은 어디시낭.

### 3.3 측정

각각의 음성 파일들은 음성분석기 PRAA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피치 형태를 참고하여 음운론적인 운율 형태를 부여하였다. 부여 방법은 ToBI를 참고하였다. 피치 범위와 구간길이는 PRAAT 프로그램의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웨이브폼의 움직임이 시작하는 구간을 시작점으로 종료되는 구간을 최종점으로 구하였다. 참고적으로 스펙트로그램상의 제1, 제2 포먼트의 움직임을 모음 구간으로 설정하여 보조적인 음향신호로 삼았다. 다음은 구체적인 측정 신호들의 측정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분석된 초점부분 예시.

#### 가. 피치 액센트의 형태

피치 액센트는 언어학적으로 언어의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신호이다. 국어학에서는 주로 경상방언, 함경 방언등의 고유의 톤을 유지하는 방언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초점과 주제를 이용하여 생기

는 톤의 형태를 가지고, 제주 방언을 구분하였다. 운율 형태 부여는 ToBI(Beckman and Elam, 1997)와 K-ToBI(Jun S-A, 2004)를 참고하였고, H\*, H!, L\*, L\*+H, 그리고 No Peak로 구분하여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였다.

#### 나. 피치 범위

피치 범위는 언어학적으로 언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음향 신호이다. 보통 초점을 받는 음절이 비초점 음절보다 넓은 범위의 피치를 갖는다(Kang, Ahn, & Hong, 2011). 일반적으로 언어별, 방언별로 독특한 피치 유형을 갖을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주제와 초점이 다른 피치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화자의 해당 초점과 주제 단어에서 최저 수치의 F0와 최고 수치의 F0를 측정하여 피치 범위를 구하였다. 기계상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동 측정 대신에 수작업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최소 5ms 정도의 기본 주파수가 지속되고, 이전 발화 F0 곡선에 이어지는 경우에만(즉,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속적인 F0를 제거하여) 측정치로 삼았다. 기본적인 측정 방법은 Ladefoged (2003)을 따랐다.

#### 다. 구간

초점과 주제를 받는 단어의 바로 이전 최종 음절 구간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초점구간은 비초점 구간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Xu, 2010). 초점 및 주제를 받는 음절 구간이 제주 방언에서 유효한 음향 신호가 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웨이브 폼과 스펙트로그램을 통하여 각 음절의 시작점과 끝점을 측정하였고, 이 측정에는 자음인 경우 웨이브 폼의 움직임, 자음의 파열, 마찰구간을 참고했고, 모음인 경우 F0 움직임, 제2 포먼트를 주요 측정 지침으로 삼았다. 측정 방법은 Ladefoged (2003)을 따랐다.

통계상의 계산은 이원배치 분산분석 방법(two-way ANOVAs)을 이용하였다. 종속 변수인 피치 액센트, 피치 범위, 그리고 음절 길이를 독립 변수인 지역(4지역: 고산, 색달, 선흘, 수산)과 문장 종류(초점, 주제)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문장수는 각 의미상의 종류별로 10개씩, 각 화자별로 20개를 추출했으며, 분석대상은  $12 \times 20 = 240$ 이다.

#### 4. 토론

##### 4.1. 피치 액센트의 형태

이원배치 분산분석은 지역 변수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액센트 유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3, 239) = 3.772, p < 0.05$ ). 그러나, 문장 종류(주제/초점)에 대하여 피치 액센트 종속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p > 0.5$ ). 또한, 지역과 문장 종류의 교호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239) = 7.977, p < 0.01$ ). 지역적으로 문장 종류에 의한 피치 액센트는 확실히 차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초점을 받는 부분이 H\*의 피치 액센트를 가장 잘 구현하는 지역은 남서 제주 지역인 고산과 색달지역이며, 피치 액센트가 해지(deaccentuation)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은 북동 제주 지역인 선흘과 수산지역이다. 이 선흘과 수산지역은 주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No Peak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1> 참조).

<표 1> 각 지역별 초점/주제별로 나타난 피치 액센트 유형

		주제	초점	비율
고산	No Peak	15	21	36
	H*	0	36	36
	LH*	11	0	11
	L*	0	0	0
	기타 (L*H, !H*)	0	5	5
	소계	26	74	100
색달	No Peak	16	4	20
	H*	20	26	46
	LH*	0	20	20
	L*	5	5	10
	기타 (L*H, !H*)	0	3	3
	소계	41	59	100
선흘	No Peak	22	21	43
	H*	8	8	17
	LH*	15	15	30
	L*	0	8	8
	기타 (L*H, !H*)	0	0	0
	소계	45	55	100

수산	No Peak	13	22	35
	H*	29	13	42
	LH*	9	13	22
	L*	0	0	0
	기타 (L*H, !H*)	0	0	0
	소계	51	49	100

전반적으로 제주 방언에서는 초점과 주제에 특정한 피치 액센트가 구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제보다는 초점에 더 많은 피치 액센트가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분석에서 남서 제주 지역은 북동 제주 지역에 비하여 의미상의 문장 종류에 의하여 피치 액센트 구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초점인 경우, 남서 지역인 고산, 색달 지역에서는 주로 H\*가 많이 나타난다. 북동 지역인 선흘, 수산은 'No Peak'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부수적으로 LH\*, 혹은 H\* 톤이 나타난다. 주제 부분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나 주로 'No Peak' 형태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LH\*가 부수적으로 쓰이며, 남서 지역인 색달, 수산 지역에서는 H\*가 많이 구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남서 지역에 위치한 고산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제보다는 초점에서 월등한 피치 액센트를 보였다 (74%). 액센트 유형별로 분석하면 H\*가 36%에 이르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주제에서는 11%가 LH\* 톤의 특징을 보이며 15%는 해지 현상을 보인다. 고산 지역의 특징은 비록 해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기는 하지만, 초점에서는 H\* 톤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귀포시 인근에 위치한 색달리 지역은 액센트를 받는 경우가 59%로 주제에서 받는 경우보다 높았다 (41%). 이 지역의 초점에서는 H\*가 26%를 점하며, 주제에서도 H\*가 20%를 점한다. 또한, 액센트 해지 현상은 주제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16%). 이 지역의 운율적인 특징은 고산 지역과 유사하다.

북제주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선흘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제주현에 속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초점과 주제 구현에서 가장 확실한 해지(deaccentuat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초점과 주제에서 'No Peak' 형태가 21-22%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피치 액센트를 구현할 때는 급격한 H\* 톤(8%)보다 완만한 LH\*(15%)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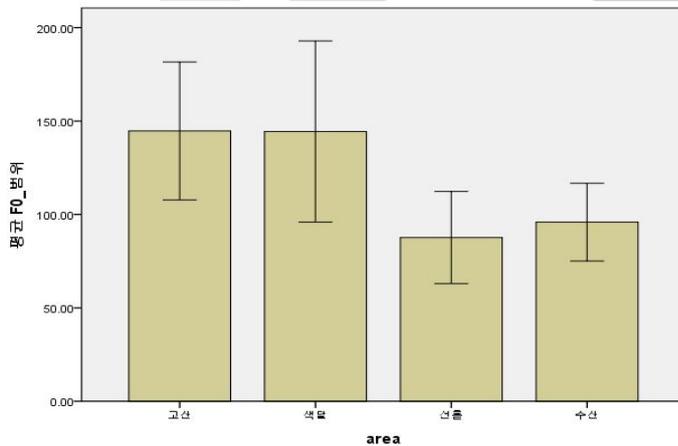
않는 L\* 톤이 8%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은 소리를 이용하여 피치의 변곡 선(pitch contour)을 주어 인지상의 강조를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남제주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수산 지역은 조선시대 정의현 현청이 있던 성읍과 가까이에 있는 전형적인 밭농사 지역이다. 이 지역의 운율적인 특징은 초점보다 주제에서 H\* 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9%). 오히려 초점에서는 액센트 해지현상이 두드러지지만 (22%), 주제에서는 H\*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29%). 이 결과는 전통적인 제주 방언에서 주제인 ‘-는/은’이 초점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 4.2. 피치 범위

이원배치분산분석은 주제/초점앞 단어의 피치범위에 대하여 각 지역별로 차이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3, 239)=8.276, p < 0.001$ ). 그러나, 문장 종류별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지역 및 문장 종류의 교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Tukey 사후검정은 F0 범위가 큰 남서부 제주와 작은 북동부 제주로 양분하고 있다. 남동부 제주에 속하는 고산지역은 F0 범위가 145 Hz, 색달 지역은 144 Hz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동부 제주지역인 선흘 지역은 87 Hz, 수산지역은 95 Hz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제주 각 지역의 피치 범위(고산, 색달, 선흘, 수산)



흥미로운 사실은 의미상의 문장 종류별로는 피치 범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산지역에서는 주제인 경우 151 Hz, 초점인 경우 141 Hz, 색달지역은 주제와 초점 동일하게 144 Hz이다. 북동 제주권인 선흘지역은 주제인 경우 78 Hz, 초점은 95 Hz로 나타나며, 수산지역은 주제인 경우 102 Hz, 초점인 경우 90 Hz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피치 범위는 제주 방언을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음향 신호일수 있지만, 의미상의 문장 종류에는 유의미한 신호가 아니다.

#### 4.3. 초점/주제 음절의 길이

이원배치분산분석은 초점/주제 앞의 음절 길이에 각 지역별, 문장 종류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그리고, 지역 및 문장 종류의 교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남서부 제주에 속하는 고산지역은 주제인 경우 210 ms, 초점은 184 ms, 색달지역은 주제인 경우 155 ms, 초점은 186 ms, 북동부 제주인 선흘은 주제인 경우 169 ms, 초점은 197 ms, 수산지역은 주제인 경우 163 ms, 초점은 159 ms 이다. 이는 초점과 주제에 의한 강세 음절 길이가 방언지역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점/주제를 받는 강세 음절은 방언권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미라(2008)에 의하면 전남 화자들은 서울화자들에 비하여 초점을 받는 음절을 길게 발화하며, 초점과 주제에 의하여 약간씩 다른 길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약에 국어 방언권 구분이 초점을 받는 음절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한다면, 제주 방언의 하위 방언권 분리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제주 방언권은 피치 형태 및 범위에 있어서 하위 방언권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하위 방언권은 초점/주제의 음절 길이에 의하여 차이를 가지고 올 정도로 명확한 권역을 형성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 5. 결론

전반적으로 제주 방언은 주제와 초점의 음성/음운론적 분석을 통하여 두 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음성학적

으로 길이가 아니라, 피치 액센트 형태 및 피치 범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와 초점을 구현하는 피치 범위는 남서 지역이 북동 지역보다 평균 50Hz 정도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서 지역이 주제와 초점 구현에 좀 더 강한 액센트를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제와 초점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 의미론적인 문장 종류에 의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는 제주 방언의 갖는 고유의 주제사 및 초점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주 남서 지역에서는 초점 구현에 있어서 H\* 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북동 지역에서는 주제와 초점에서도 액센트 해지(deaccentuation)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초점에서도 ‘무 정점(No Peak)’ 형태가 다수 나타나고, 이런 현상은 주제에서 더 강화된다. 이런 음운론적인 현상은 음성학적으로 피치 범위를 좁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오며, 이는 제주 남서 지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초점과 주제를 받는 음절길이는 제주 지방 방언 구분에 주요한 변수가 아니다.

지금까지 제주 방언권을 세분할 때에는 어휘를 기준으로 하여 해안가 지역과 산촌지역으로 구분하거나, 지역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 동과 서쪽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또는 신, 구 행정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세 개 지역(제주, 정의, 대정)의 조선 시대 행정구역이나, 현재의 행정구획선을 고려한 남과 북쪽 지역으로 하위 구분하여왔다. 본 제주 방언 각 지역에 대한 연구는 초점과 주제에 구현되는 음성/음운론적인 특징을 관찰하여 제주 방언이 두 개의 하위 방언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현재의 행정구획선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의미론상의 초점과 주제가 구현하는 운율특징이 하위 방언권을 분류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초점, 주제, 제주 방언, 피치, 길이, 톤

## 참고문헌

강석한. 2008. 제주 한국어의 강조 중첩어에 나타난 자음 음변화 양상연구. 『언어학 연구』 13, 1-16.

- 강정희. 1988. 「제주방언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 강정희. 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서울: 역락.
- 김용범. 2004. 초점과 주제의 음성학적 관련성. 「언어와 정보」 8(1), 27-52.
- 박승윤. 1986. 담화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2), 1-15.
- 오미라. 2008. 운율과 정보 구조: 한국어 초점과 주제의 음성적 실현. 「음성과학」 15(2), 7-19.
- 최규련. 1998. 국어 초점사 '다만'과 '-만'의 의미. 「한글」 240·241 통합집, 299-322.
- 최규련. 1999. 초점과 영향권. 「텍스트 언어학」 6, 331-359.
- 최규수. 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임자말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최재웅, 전윤실, 장윤, 박순복, 김기호. 1999. 한국어 특수 조사 '-만'에 연계된 초점의 음향 음성학적 특징. 「음성과학」 5(2), 77-91.
- Beckman, M.E., & Elam, G. 1997. *Guideline for ToBI labelling*. Version 3.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 Chung, S.-J., & M. Kenstowicz. 1997. Focus expression in Seoul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I. 93-105.
- Gundel, J.K.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Bosch and Sandt (eds.). *Foc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3-305.
- Halliday, K.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Cambridge: Mouton.
- Jo, J., Kang, S., & Yoon, T. 2003. *Grammatical encoding of focus information in Korean: morpho-syntactic, semantic and acoustic evidence*. Michigan Linguistic Society Annual Meeting 2003, University of Michigan at Ann-Arbor.
- Jun, S. 2004. Intonational phonology of Seoul Korean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14th Japanese-Korean Linguistic Conference*. Stanford: CSLI.
- Kang, S., Ahn, H., & Hong, M. 2011. *Korean English learners' acquisition of L2 focus*. Unpublished paper.
- Ladefoged, P. 2003. *Phonetic data analysis: An introduction to fieldwork and instrumental technique*. Cambridge: Blackwell.
- Lee, C. 2000. Topic, contrastive topic and focus: what's on our mind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2, 21-38.
- Reinhart, T. 1982.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강석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02-880-7670

kangs45@snu.ac.kr

원종섭

제주도 제주시 대학로 102번지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064-754-3220

jongsup@hotmail.com

김원보

제주도 제주시 대학로 102번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064-754-2431

kimwonbo@jejunu.ac.kr

접수 일자: 2011. 10. 30.

심사 수정: 2011. 12. 7.

게재 결정: 2011. 12. 15.

K C I

к с і